

1만5000여 LED 촛불 수놓은 정원서 환상의 클래식 선율

순천만국가정원서 6일 밤

국내 최대 ‘캔들라이트 콘서트’

‘앙상블 톤즈’ 고품격 공연 선보여

1만5000여개의 LED 촛불로 수놓은 정원서 환상의 클래식 선율이 전해진다.

순천시가 오는 6일 오후 7시 40분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에서 개최한다.

‘별가든 밤·치유와 위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약 1만5000여개의 캔들라이트가 정원을 수놓으며 환상적인 야경을 만든다. 고품격 클래식 선율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따뜻한 위로,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피아노·바이올린·비올라·첼로로 구성된 클래식 5중주 ‘앙상블 톤즈(Ensemble



‘캔들라이트 콘서트’ 포스터.

Tones)’가 올라, 클래식명곡과 영화음악, 지브리 OST 등으로 구성된 총 65분간의 고품격 공연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과 춤추

기 수놓인 수많은 촛불이 어우러져, 순천만국가정원만의 특별한 여름밤의 정취와 감성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야간 특별공연에 맞춰 정원의 야간 운영시간도 특별히 연장된다.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은 이날 하루에 한해서 오후 10시까지 2시간 연장되며, 입장권 발권은 평소와 동일하게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공연 관람은 입장객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좌석 없이 돛자리를 지참하여 잔디 위에 자유롭게 앉아 공연을 감상하는 피크닉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서, 이번 고품격 야간 문화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치유와 위로, 감동과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하고, 정원의 사회적 치유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25년째 ‘사랑나눔’

결연 용장마을 주거환경 개선

명절때마다 떡·과일 등 전달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한 부서가 광양시 한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25년째 이어져 오면서 올해도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에너지부 전력계통색선 임직원들과 에너지 전력질주봉사단 단원들이 지난달 30일 자매결연 마을인 골약동 용장마을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전력계통색선 직원 25명이 참여해 마을 내 노후 대문 5가구 도색, 취약가구 주거 정리, 마을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천하며 쾌적한 마을 조성에 힘을 보탰다. 포스코 임직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큰 호응을 보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에너지부 전력계통색선은 지난 2000년 골약동 용장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25년 동안 매년 명절 위문, 마을 환경정화, 주거환경 개선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오

며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상생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마다 떡, 과일, 음료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마을 소식 게시판을 설치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도 기여한 바 있다.

신대현 용장마을 통장은 “매년 잊지 않고 찾아와 마을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육상우 광양제철소 에너지부장은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에너지부 직원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 앞으로 더욱 가치를 더해, 용장마을이 더불어 잘사는 청정 마을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옥병 골약동장은 “지역사회와 오랜 시간 따뜻한 동행은 이어온 포스코 광양제철소 에너지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나눔 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말레이시아 사바주와 지역축제 글로벌화 업무협약

지역축제 공동 추진 등 협력

보성군은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 상호 협력과 지역축제의 글로벌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제적 축제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와 관광청, 전통예술 공연단이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공식 방문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성군의 대표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와 사바주의 카마탄 축제 간의 상호 참가, 콘텐츠 교류, 공동 홍보 및 실무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보성군은 이번 MOU 체결 및 축제 교류를 통해 자치단체 간 교류를 넘어 지역 축제 콘텐츠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플랫폼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며, 양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과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글로벌 관광객 유치 확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문화 공연 교류 행사는 양측이 전통문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보성군립국악단’은 장구, 가야금 등 한국 전통악기로 구성된 전통 국악 공연을 선보이며 카



보성군은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와 문화관광 분야 상호 협력과 지역축제 글로벌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탄축제 현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보성군 홍보 부스를 통해 보성 관광 콘텐츠 소개, 한국 전통 소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보성군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서형빈 보성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보성군이 보유한 문화적 자산과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제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자,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바주 관광·문화·환경부의 메리 이시도어 말랑킹(Mary Isidore Malangking) 제1차관은 “보성군과의 협력은 사바주의 국제 관광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번 교류는 양 지역 간 문화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단발성 행사가 아닌, 보성군과 사바주 간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출발점이자, 보성군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문화도시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여름철 사고 예방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농촌관광시설 63곳 안전점검

곡성군이 여름철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중순까지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 한해동안 농촌관광시설로 지정된 총 96개소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농어촌민박 5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 관광농원 6개소 등 총 63개소의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민박 13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 등 취약시설 15개소는 만·관 합동 전문점검반을 통한 정밀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곡성군 공무원 2명과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 시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소화기와 단독화재경보기 등 일부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 및 교체토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위생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군은 오는 6월 중순까지 읍·면 담당 부서와 협력해 농업·농촌민박 42개소와 관광농원 6개소 등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 상태, 전기 설비의 이상 유무, 가스 누출 및 취급 실태 등 주요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며 “곡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녹동항 바다정원서 일원서 펼쳐지고 있는 드론쇼.

고흥 녹동항 호남 최대 규모 드론쇼 펼친다

7일 바다정원서 2025대 환상 연출

고흥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2025대의 화려한 드론 쇼가 오는 7일 오후 9시에 펼쳐진다.

이번 쇼는 당초 지난 4월 드론쇼 올해 첫 공연으로 계획되었다가 산불과 기상 관계로 연기돼 이번엔 선보이게 됐다.

고흥군 관계자에 따르면 “드론 2025대는 ‘2025년’을 상징하게 기획한 것이며, 호남권 최대 규모이다”고 밝혔다.

녹동항과 소록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드론 퍼포먼스와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어우러진 야간 공연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 2025대의 드론이 고흥의 3대 미래 비전(우주, 드론·UAM, 스마트팜)과 3대 교통인프라(고흥·광주 고속도로, 고속철도, 고흥·봉래 간 도로 확포장)를 형상화해 입체적으로 연출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드론 운용 기술을 활용한 연출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쇼와 함께 진행되는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

쇼는 레이저와 불꽃 효과를 통해 야간 공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드론과 불꽃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고흥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드론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드론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오후 8시부터는 버스킹 공연이 바다정원 일대를 감미로운 음악으로 채울 예정이며, 장어요리와 각종 회 등 신선한 해산물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고흥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농수산 직거래장터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드론쇼는 고흥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감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우나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드론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녹동항드론쇼 홈페이지(<http://nokdongdrone.co.kr>)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을 통해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여수 도시공원 물놀이 시설 7월부터 운영 재개

바닥분수 9곳은 27일부터 가동

여수 도시공원 내 물놀이 시설이 내달부터 운영된다.

여수시는 올해 역대급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성산공원과 여문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곳을 오는 7월12일부터 8월17일까지 운영한다.

두 물놀이장은 3세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오전·오후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전반(10~12시)은 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예약과 선착순, 오후반(2~5시)은 선착순으로만 입장이 가능하다.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의 안전 점검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매주 월요일과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등) 발효 시에는 시설 정비 및 저수조 청소를 위해 휴장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예약은 7월 1일부터

접수하며 성산공원 150명, 여문공원 50명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조성된 생각기움 체험놀이터 암골못공원, 강남정공원 2곳과 이순신공원, 동동공원, 해변문화공원 등 7곳 내 바닥분수는 6월 27일(금)~8월 31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45분 가동, 15분 휴식으로 반복 운영된다.

공원 산책로 주변에 설치된 쿨링포그는 정비를 마쳐 6월 27일(금)부터 가동되며, 이순신광장과 남산공원에 설치된 인공 분수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5월 초부터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성황리 마무리



구례군이 지난달 31일 구례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행사가 그네·트리클라이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행사는 오는 28일과 11월1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구례군 제공〉